

##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촉각'

도, 산자부에 신청서 제출... "코로나, 제주관광 직격탄"  
관광산업 위기로 전국 첫 사례... 지정요건 충족 관건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에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제주관광산업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특별지역 지정 등 정부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절실한 가운데 최종 지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기존 제조업을 통해 지정된 타 지역과 달리 관광산업 위기로는 제주도가 첫 신청 사례로,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와 지속 협의하면서 지정 요건 충족을 위한

논리개발에 나섰던 제주도의 논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지난달 31일 산자부에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제주도가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지정 기준에 맞는지 등 검토 작업에 나설 전망이다. 검토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은 지난 2017년 6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

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이다.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실직자 재취업 및 이직 알선을 포함한 창업 지원과 고용 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상공인은 자금 보조와 융자 등을 확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지역 기업들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한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다.

특별지역은 2018년 4월 한국지원이 공장 폐쇄를 결정한 전북 군산이 처음 지정됐다. 같은 해 5월에는 울산 동구,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영암·목포·해남 등 5곳이 조산업 위기로 지역 경제가 휘청이자 특별 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여파로 관광지

장이 직격탄을 맞아 지난 2월부터 특별지역 지정 건의 검토작업에 착수해 6월 관련 용역을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정부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도의회는 산자부와 국회 등에 보낸 촉구 결의안에서 "제주지역 산업 비중의 70%를 차지하는 서비스업 중 관광산업의 피해가 가장 크다"면서 "관광이 주된 기간산업인 제주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경제 전반에 걸쳐 침체가 심각한만큼 조속히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돼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은지기자

## 제주 '지역화폐' 10월 첫 선

도, 올해 200억 발행 결정  
2022년까지 총 3700억 규모  
편의 카드·모바일형  
도내 등록 가맹점서 사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카드·모바일형' 제주 지역화폐가 오는 10월 발행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열린 '제주 지역화폐 발행 추진TF팀' 회의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오는 10월부터 제주 지역화폐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발행 규모는 올해 200억원을 시작으로 2021년 1500억원, 2022년 2000억원 등 3년간 총 37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 지역화폐는 도민과 관광객의 사용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카드형·모바일형 전자상품권으로 발행될 예정이다. 대형마트 및 사행·유형업소 등을 제외한 도내 가맹점으로 등록된 모든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도는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할인 또는 캐시백 제공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수립 중이다. 도민뿐만 아니라 국내 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신기술과 정

책을 결합하는 지속가능한 지역화폐 모델을 구현하고 단계별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정책 인센티브를 연계할 방침이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경제 활성화를 조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이달 중 공개입찰을 통해 발행·운영에 대한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가맹점 통합관리·부정유통 방지·통합이력관리·비대면 분석 활용 등 통합관리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이다.

대행업체 선정 후 지역화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오는 2022년까지 단계별 제주 멤버십 서비스, 포인트뱅크 구축 등을 추가 개발할 예정이다.

도는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이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오는 9월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주 지역화폐 명칭 공모 및 가맹점 모집 등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의회, 소비자단체, 상인회, 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지역화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역화폐 발행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할 계획이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 제주감귤박람회, 온라인 박람회로 열린다

11월 27일~12월 11일...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일원  
라이브 방송 스튜디오 구축 홈페이지·SNS 송출

올해 제주감귤박람회가 '제주감귤, 새로운 도전과 희망!'의 주제로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15일간 온라인 가상공간과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일원에서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과 (사)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는 '2020 제주감귤박람회'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온라인·비대면 행사로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제주감귤박람회는 매년 관람객 10만명이 찾고 있으며, 단일품목으로는 국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박람회다.

감귤박람회조직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행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행사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온라인 감귤박람회로 개최할 계획이다.

조직위는 행사기간에는 가상의 3D 온라인 감귤박람회 사이트(www.jicexpo.com)를 운영해 관람객들에게 실제 박람회장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고 박람회 현장에는 라이브 방송 스튜디오를 구축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을 이용한 개·폐막식, 감귤 소셜 홈쇼핑, 골빛가요제, 컨퍼런스, 감귤 퀴즈 등을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행사로는 감귤 및 가공품 판매 기획전, 농기계전, 컨퍼런스, 골빛가요제, 감귤박람회 포스터 공모전 등을 진행하고 비대면 행사로는 감귤품평회 및 수상감귤 전시관 운영, 드라이브 스루 감귤판매, 감귤따기 체험 행사를 진행키로 했다. 아울러 SNS 감귤사진 공모전, SNS 서포터즈 모집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도 진행한다.

이와함께 조직위는 전국방송과 지역방송 등을 활용해 제주감귤의 우수성을 홍보한다. 특히, 감귤 및 가공품 판매를 위해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네이버, 티몬, 유튜브 등 온라인을 이용한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 장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폭염 댄친 날... 모종에 물 뿌리는 농민 3일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에서 한 농민이 양배추 모종에 물뿌리기 작업을 하고 있다. 강희민기자

## "제주 중기제품, 선물꾸러미로 특가 판매"

JTP, 7일부터 3주간 매주 금·일 이호테우등대 일원

제주지역 중소기업들의 우수제품을 선물꾸러미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특별기획전이 열린다.

제주테크노파크(JTP)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로 상품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우수한 제주의 제품들을 홍보하기 위해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제주 중소기업제품 드라이브 스루 특가판매전'을 마련한다.

행사 기간은 오는 7일부터 23일까지 3주간이며, 매주 금·일 오후 3~7시에 이호테우등대 일원 분마이호랜드 부지에서 이뤄진다.

'착한 소비가 만드는 작은 기적, 힘내요! 제주'를 표방하는 이번 행사에는 (사)제주바이오기업협회 회원사 13개 기업이 참여하며, 생산한 화장품 3종과 식품 11종을 각각 꾸러미 상품으로 구성해 40~6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제주테크노파크는 1000세트를 한정 제작해 화장품 꾸러미는 1만5000원, 식품 꾸러미는 2만5000원에 선착순으로 각각 판매할 계획이다.

상품구매는 제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jejutp.or.kr)를 통해 사전주문 가능하며, 현장에서 바로 주문 결제할 수 있다. 사은품도 받을 수 있다. 백금탁기자

www.booyoungyouth.com

## Jeju Booyoung Youth Center

#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 청소년들의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곳 ”  
아름다운 자연속에 추억이 머무는 곳

**최고보다 최선을, 성공보다 행복을 꿈꾸는 청소년을 위한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의 청소년지도자들은 인성, 진로, 놀이, 봉사, 리더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수련활동에 참여, 숙박할 수 있도록 깨끗하고 편리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들의 행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아름다운 환상의 섬 제주에서 청소년들이 미래 지향적 사고와 꿈을 키우고, 몸과 마음이 행복해 질 수 있는 수련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전과 용기 그리고 희망을 키우는 터전!**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상로17번길 52-17(중문동)  
T. 064-760-5700 F. 064-760-5757